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백) 부활 제2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백)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3. 4. 16.)

• 제1독서(사도행전 2,42-47):

형제들은 42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43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4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7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 제2독서(베드로 1서 1,3-9):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4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6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복음(요한 복음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

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화답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 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정치인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행동하게 하소서.
3.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곳곳이 이겨 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4. 본당 사도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저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성가 ♪

- 입당 : 130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 : 167 (생명이신 천상양식)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 파견 : 131 (찬미 노래 드리자)

♣ 2023년도 상반기 피정 안내

- 일시 : 2023년 5월 13~14일
- 장소 : Sacro Monte Calvario di Domodossola B.ta S.M. Calvario. 5-28845 Domodossola(VB)
- 강사 : 민엠마 수녀님(성바로로팔 수도회)
- 주제 : "누구를 찾느냐?(요한 20,14)"

♣ 미사 후 성전 문단속

- 예전처럼 미사가 끝나면 곧바로 성전 내 소등, 정리, 문단속합니다.(파란색 대문 사용 불가)
- 일찍 귀가하셔야 하는 분은 성전 열쇠를 가진 분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임 / 회의

- 사목회의 : 오늘 미사 후, Sala gichi
- 1구역 모임 : 4월 22일(토), 12시(Allevamento Ittico Ticino)

♣ 봉사자

	오늘 주일(16일)	다음 주일(23일)
제1독서	류정연 릿타	정명용 미카엘
제2독서	김지선 소피아	정지원 클라라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강윤이 스텔라	박동현 요한보스코 안태오 마태오
계단·화장실	류정연 릿타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성목요일 €172.0, 성금요일 €148.01
부활 성야미사 €317.16, 부활대축일날미사 € 327.04
- 교무금 € 0.-

부활 삼종 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p>✦ 기도합니다.</p> <p>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p> <p>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p> <p>◎ 아멘.</p>
---	--